

# 진흥회 활동

## 인터넷과 지적소유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와 서울대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통부,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전자신문 후원으로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인터넷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특허청 변리사회 등 관계기관과 데이컴 등 업계와 학생, 교수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특허전문 법률사무소인 Finnegan, Henderson, Farabow 등의 특허전문 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가 연사로써 참가 주제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본 국제심포지엄 목적은 인터넷산업의 법적환경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IMF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산업·정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재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재편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의 지식산업·정보산업은

인터넷의 효율적인 활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21세기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도 인터넷과 분리해서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은 많은 분야의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적 소유권법상의 분쟁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지적소유권법에 관한 연구와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미국은 인터넷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판례와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지식산업·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판례와 연구결과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심포지움은 인터넷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 소유권 각 분야별로 고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 학술행사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제심포지움 발표내용은 지적소유권법 각 분야별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 심포지움은 인터넷의 개념에 생소한 청중을 위해서 인터넷의 기본 개념과 기술적 특징에 관한 소개와 설명부터 시작되었다. 곧이어 “인터넷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주제발표에서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여 국경의 장벽없이 상품의 판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터넷매체가 광고수단으로도 활용되어 다수의 국가에 동시다발적인 광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표현매체를 통해서 음란물 등의 불법적인 디지털상품이 전세계에 동시에 유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느 국가가 법적규제 또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인터넷과 상표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이 상표와 동일한 것인지, 자신의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광고 등의 경우에 다수의 국가에서 타인의 상표권의 희석(Dilution) 또는 상표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등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지는 주제발표 “인터넷과 저작권”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상당 부분의 디지털 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그러한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와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복제권·배포권 등의 저작권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를 접하고 브라우징(Browsing)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의 대중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제한 또는 저작권침해의 예외가 많은 논의대상으로 제기되는데, 이러한 저작권법 문제가 깊이있게 검토되었다. 더욱이,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 또는 PC통신망사업자들도 함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게되는지 여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미국의 흥미로운 사례도 소개되었다.

휴식후에 이어지는 주제발표 ‘인터넷과 영업비밀’은 최근에 국내에서도 산업스파이 문제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이 특히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E-Mail)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그 보호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제기되어 그 민사·형사책임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특허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는,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를 포함해서 인터넷 기술에 대한 특허권부여의 현황과 인터넷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지 등의 새롭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고 최근사례들이 소개되었다.

### “전자의료기기 최초 1억불 수출 달성”

한국전자산업진흥회내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한원국)에서는 전자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전시회 적극 참가 및 신시장 개척의 결과로 우리나라 핵심 전자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 전자혈압계, 일반 X-Ray기기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대비 31.3% 늘어난 115,814천불('96. : 88,223천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동대비 마이너스 11.1% 감소한 483,898천불('96. : 544,386천불)을 기



록하여 국산 전자의료기기도 이젠 1억불 수출시대를 맞이하였다.

품목별 수출현황은 초음파진단기가 44.6% 늘어난 63,072천불('96 : 18,367천불)로 이는 (주)메디슨이 칼라 초음파진단기 및 3차원초음파진단기 수출기반이 다져졌으며, 여기에 삼성GE의료기기도 합세하여 전체 115,814천불의 54.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혈압계는 17.4% 늘어난 12,054천불('96 : 10,270천불)을 기록하였으며, 세인전자의 꾸준한 수출성장세와 자원메디칼의 신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전자 혈압계의 생산 강국(년간 200만개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변모하였으며, 일반 외과용 기기(마취기 등)는 34.8% 늘어난 6,211천불('96 : 4,607천불)을 기록하였으며, 일반 X-Ray기기는 동구권, 남미지역 등의 신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111.4% 늘어난 7,984천불('96 : 3,777천불)을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은 전년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1% 감소한 483,898천

불('96 : 544,386천불)을 기록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주요 수입품목은 심전계가 가장 많은 감소한 마이너스 43.0%인 3,334천불('96 : 5,847천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세인전자와 메디슨의 합작회사인 바이오시스의 내수시장 확대에 밀려 수입이 감소세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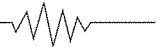
전자혈압계도 세인전자에서 손목측정형으로 새로운 모델을 지난 1월에 출시하였으며, 자원메디칼은 (주)솔고와 협력하여 국내시장 확대를 꾀한 결과 외산 전자혈압계가 마이너스 10.6% 감소한 4,797천불을 기록('96 : 5,364천불)하였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도 삼성GE의료기기에서 보급형(이코노믹급)으로 개발하여 가격대도 국산이 2억원대인 반면 외산은 3억5천만원으로서 중소병원에서 가급적 국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마이너스 17.8% 감소한 29,045천불('96 : 35,326천불)이다. 또한 자기공명진단장치도 마이너스 44.2% 감소한 33,848천불('96 : 60,627천불)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 수출입 동향('96/'97)

(단위 : US \$)

품목명	수출실적 (US \$)		수입실적 (US \$)		증감율 (%)	
	1996	1997	1996	1997	수출	수입
초음파진단기	43,619,331	63,072,357	31,503,645	35,832,992	44.6%	13.7%
심전계	336,287	2,303,397	5,847,715	3,334,032	584.9%	-43.0%
전자 혈압계	10,270,986	12,054,269	5,364,083	4,797,638	17.4%	-10.6%
외과용기기	4,607,738	6,211,953	86,998,507	77,016,708	34.8%	-11.5%
컴퓨터단층	31,046	1,576,429	35,326,524	29,045,151	4977.7%	-17.8%
일반X-Ray	3,777,908	7,984,625	45,195,609	45,678,843	11.4%	1.1%
자기공명촬영	472,937	743	60,627,959	33,848,624	-	-44.2%
혈관조형촬영	0	1,784	17,951,129	16,751,018	-	-6.7%
기타 의료기기	25,107,626	22,609,139	255,571,541	237,593,619	-9.9%	-7.0%
합 계	88,223,859	115,814,696	544,366,712	483,898,625	31.3%	-11.1%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지역별 수출점유율을 보면 유럽지역이 23.5%(27,172천불), 미국지역이 19.4%(22,522천불), 아시아지역이 18.0%(20,857천불), 동구권이 11.8%(13,670천불), 남미지역이 7.4%(8,618천불), 일본지역이 5.9%(6,847천불), 중동지역이 3.1%(3,545천불)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할 점은 국산 전자의료기기 수출이 종전 아시아 지역을 주 대상지역이었으나, '97년에는 유럽, 동구권, 남미, 일본지역으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수입선을 보면 미국지역에서 35.2%(170,096천불), 유럽지역에서 34.4%(166,515천불), 일본지역에서 25.2%(121,982천불)로 국내에서 수입되는 전자의료기기 대부분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국내 시장의 열악함과 동시에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고충이 더한층 어려웠으나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에서는 지난 '96년 11월에 유럽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 '96 전시회에 한국 공동관을 필두로 '97년 3월 태국 MEDITECH '97 전시회 참가, 6월에는 HOSPITAL '97 전시회 참가 등 해외 유명의료기기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여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보통신기기 등의 품질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본회 및 전자·정보통신 업계는 정보통신부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보통신 기기품질평가제』에 대해 도입반대 건의를 하였다. 본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품질평가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정보통신기기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며 제도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부 시책이 업계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등 산업계와 정부의 교량역할을 적극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귀 부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조치는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므로써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새로 도입코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특히 정보통신기기 평가에 관한 제도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이동통신서비스(셀룰라, PCS, 무선호출, TRS 등) 및 관련기기는 그 특성상 객관적, 안정적 평가가 곤란.

- 즉, 전파의 환경(간섭, 이용객 폭주, 시스템상 태 등)에 따라 통화율과 통화 품질 등이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같은 장소 같은 환경이라도 미세한 시간차이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 초래.

- 평가결과에 대한 재연성이 없으며, 통신운영체 계상의 문제 또는 전파환경의 문제인지 단말기 품질 때문인지의 원인 분석도 곤란.

- 또한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스템 또한 아직 초기단계라 통신망구축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둘째, 정부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품질, 신뢰성 제고 등은 형식검정(등록)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업체별 품질에 대한 평가는 시장기능(민간자율)에 일임함이 바람직.



- 현재 모든 무선통신기기는 새 모델이 개발되면 형식검정(등록)을 받은 후 생산이 가능하며, 이후 생산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서 전수검사 또는 샘플 검사의 방식으로 기술기준확인증명 수검(이동전화기 등에 대해서는 '98.7.1부터 폐지 예정).

- 또한 유통되는 무선통신기기가 필요전파 발사 등 기준에 위배시에 대해서는 전파 감시 등 사후관리를 시행중.

- 따라서 정부의 통신기기에 대한 품질제고는 최초에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하므로써 충분하며, 다시 많은 회사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면에서 동시에 평가함은 과도한 규제일 뿐아니라, 국가 행정력 낭비이자 규제완화 시책과도 배치.

- 아울러 단말기 등 기기의 품질측면에서의 평가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

셋째, 세계적으로 통신단말기 등 장비에 대해 최초의 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 외에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하는 사례 부재 → 무역 마찰 및 수출 활성화에 지장 초래 우려

- 최근 WTO, 정보기술협정(ITA), APEC 등 다자간 무역 관련 협상과 쌍무협상 등의 골자는 관세인하와 인증 등의 규제완화.

- 이러한 추세에서 객관적인 평가도 곤란하고 다른 나라는 시행하지도 않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시 무역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출 대상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 산업계에 피해 초래 우려.

-따라서 국내 통신기기 산업계의 입장에서도 CDMA 장비 및 단말기 개발 등으로 막대한 내수 시장을 수입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주력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은 곤란.

위와같은 사유로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제도(특히,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부디 실시하지 않기를

건의 드리오니, 최근 IMF 사태와 내수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가전제품과 리사이클링 사업추진 임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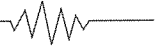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4월 3일 아산 재자원화 센터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가전3사 및 주업업체들이 모여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사업추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재활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등 최근의 환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 케이블 모뎀업계 회의 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CATV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실시계획에 따른 케이블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자부품연구소, 한국 뉴미디어 연구조합 등 관계기관과 콤팩시스템, 대우전자, 삼성전자, 미디어링크, 주흥정보통신, 자넷시스템 등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제정 및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배정 등과 관련한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는 현재의 개발 방향과 표준화 등에 대해 진흥회와 관련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케이블 모뎀외에 헤드엔드장비인 CMTS 장비의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기로 하였다.

#### 위성방송수신기(SVR) 수출업계 회의 개최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업계에서는 지난 4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대륙전자, 흥창, 태일 텔레콤, 태



광산업, 태산전자, 삼성물산, 휴맥스, 기룡전자, 아남전자, 신원 등 10개사가 모여 SVR 수출에 관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SVR 세번 변경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핵심 칩 등의 공동구매 및 특허의 공동 대응키로하는 등 관련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특히 SVR업계가 매월 1회 또는 사정에 따라 자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자제키로 하는 등 관련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진흥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기미디어 협의회 임원 회의 개최

자기미디어 업계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코오롱, SKC, 새한미디어, LG전자, SKM의 임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간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의 시장 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였고 필요시 현지 주재 상사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기로 협의하였다.

#### 전해 콘덴서 표준화 회의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전해콘덴서의 표준화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영전자, 삼화전기, 삼성전기, 대우전자부품 4개사가 모여 표준화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화 과제를 계속 발굴키로 하고 AI-Foil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모니터 수출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최근 시장 및 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4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솔전자, KDS, 오리온전기, LG전자 등 국내 모니터 업체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수출분과 위원회에서는 각 사의 수출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사브랜드 수출 및 신제품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 제4차 리사이클링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4월 16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실무 부장들이 모여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정책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가전3사 부장들이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였다.